

전남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빈틈없이 준비

22개 시·군 부단체장 참여

한달 앞두고 추진 상황 보고회

숙박·안전·교통·환경정비서

성화봉송·자원봉사자 운영 논의



전남도는 지난 1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22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오는 10월과 11월에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군 운영부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각 시·군의 정성 어린 준비태세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군 상황실 운영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 및 주차관리대책 ▲경기장 시설 안전 점검 ▲숙박·음식점 바가지 요금 근절과 친절 캠페인 실시 ▲도민응원단·자원봉사자 운영 ▲성화 봉송 ▲체전과 연계한 시·군 문화행사 등 막바지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전국체전 도민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홍보탑(78기), 배너기(3천105조), 꽃탑(20개) 등을 설치한다. 또한 버스승강장 홍보물 부착,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문구 송출, 주요 기차역·휴양시설 내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이·통장회 등도 앞장서서 전국체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도민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 대회 성공개최 분위기를 더

욱 고취 시킬 방침이다.

특히 주 개최지 목포에서는 개·폐회식이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 주변 교통혼잡을 대비해 선수단 수송버스 주차관리, 관람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시작을 밝혀줄 성화는 오는 18일과 21일에 해남 땅끝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특별 채화되며, 공식성화는 오는 10월 3일 강화군 마니산과 목포시 북항노을공원에서 채화된다.

10월 10일 전남도청 만남의광장에서 특별채화와 공식채화된 성화의 합화식을 가진 후 4일간 22개 시·군 147개 구간에 순회한 뒤 개회식이 열리는

10월 13일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성화봉송은 양대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고 중요한 행사인 만큼 도내 체육인, 청년 등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시·군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성화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은 올 가을 전남을 방문할 대규모 손님맞이를 위해 전기·기계설비 시운전, 외부 조경공사 등 막바지 작업을 마치고 오는 6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한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준비는 대회 주인공인 체육인과 관람객의 입장에서 불편함

이 없도록 분야별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운영해 경기장, 숙박·위생·편의시설의 철저한 점검·관리 등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행사를 제공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감동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알차게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공연·전시 등 풍성한 문화행사

전남도립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강연과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복합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독서의 달은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독서의 달은 '펼쳐보자, 책도 꿈도'를 주제로 전국 도서관이 참여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시기에 맞춰 오는 9월 11일과 9월 18일 김정래 작가의 '시간을 남나드는 수목화', 9월 25일 오지근 작가의 '문화와 함께하는 하루수업'이 준비됐다.

또 9월 17일 불빛을 활용한 블랙라이트 인형극 '미운오리새끼', 9월 23일 '빛처럼 마법처럼' 특별 공연으로 즐거운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1층 남도화랑에서 이치호 아트선선 관장의 특별전 '곡선에 표상된 울과 시' 전시도 개최된다. 이 외에도 ▲지혜의 숲 도민강좌 ▲올해의 책 작가와의 대화 ▲독서동아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림책 놀이 ▲도서관 주제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도서관 대표 누리집(lib.jeonna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용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올해 독서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된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지속적인 독서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13일까지 사회조사 1만9116개 표본가구 대상

전남도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전남도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실태, 사회적 관심사 및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79만 7720가구 중 약 2.4%에 해당하는 1만9116개 표본가구이며, 15세 이상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로 실시된다. 조사분야는 ▲소득·소비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12개 분야 45개 문항으로, 전남도 공통문항과 시·군 특성문항으로 구분해 조사한다. 주요 문항은 ▲삶에 대한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도 ▲걱정되는 질환 등이다.

결과는 12월 전남도 누리집에 공표될 예정이며, 전남도와 시·군의 정책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상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사회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듣는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며 "조사표는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순사건, 진실과 화해의 여정' 전남도 역사탐방 프로그램 시작

학생·전문가 등 1000여명

14연대 터 등 학살현장 견학

전남도가 '여순 10·19사건'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순 10·19사건, 진실과 화해의 여정'을 주제로 여순사건에 관심 있는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역사 탐방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교훈 여행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근현대의 민주화 발전 과정과 여순사건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역사 탐방에선 ▲옛 국군 14연대 터 ▲만성리 형제묘 ▲낙안 신전마을 ▲여지마을 ▲간문초 등 여수·순천·광양·구례의 주요 학살 사건 발생지역을 두루

살펴본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여순사건의 진실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전문 강사의 맞춤형 해설은 물론 여순사건이 한 눈에 들어오게 정리한 홍보물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본격적인 여순 10·19사건 유적지 답사 시행 전에 본 사업의 전국화와 참여 홍보를 위한 광주전남 언론인을 대상으로 여순 10·19사건 유적지 사전답사를 지난 8월 31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여순 10·19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는 전남도(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순 10·19사건에 관심 있는 국민, 초·중·고·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분야별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10·19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역사 교훈 여행 사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수산물 기업과 227억원 투자협약

순천·광양·진도에 129명 일자리

전남도가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광양시, 진도군과 협력해 농수산물 관련 기업과 22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순천 울촌자유무역지역에는 ㈜다와이에코사이언스가 142억원을 투자해 완효성 비료 생산 및 포장 자동화 설비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을 갖춘 합성비료 제조 공장과 연구소를 신설한다.

광양에는 봉강친환경영농조합임원이 봉강면에 40억 원을 투자, 미생물 코팅 자동화 및 비료 포장설비 등 유기질비료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진도에는 ㈜서부물산이 진도 군내농공단지에 45억 원을 투자해 전복 스테이크, 자숙문어를 제조하는 세척 및 포장 시설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 광양, 진도에 총 12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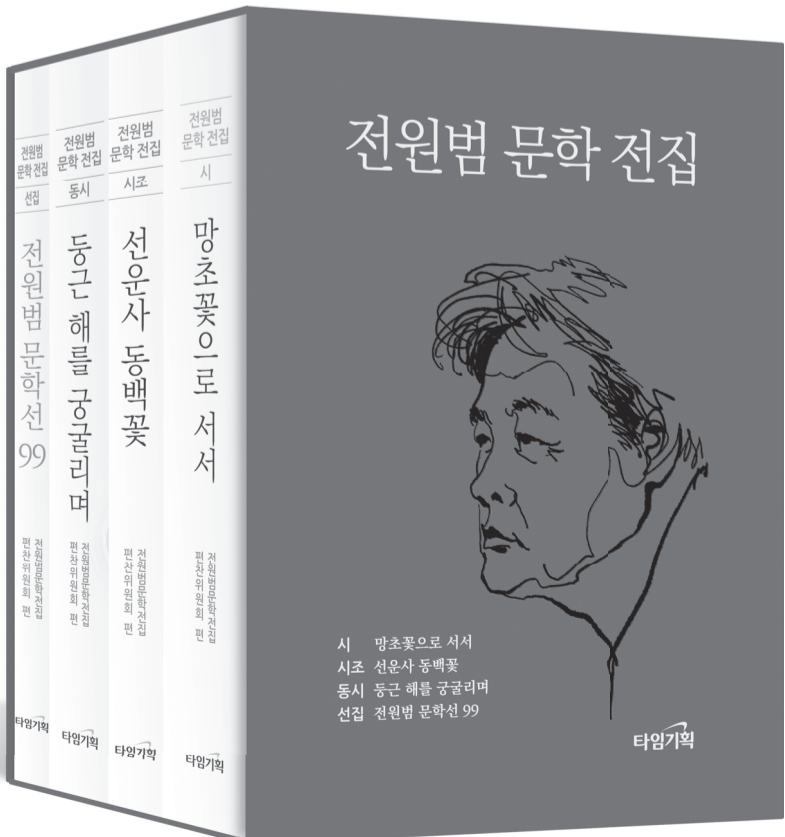
전남도 '적극행정 주민모니터링단' 18명 위촉

전남도가 지난 8월 31일 도청 왕인실에서 '적극행정 주민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적극행정 주민모니터링단은 시·군에서 활동 중인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중에서 추천 받아 18명을 최종 선정, 9월부터 1년 간 활동을 시작한다. 단원들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적극행정 정책을 점검해 개선 의견 제시, 우수사례 발굴심사, 주민 체감도 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대의 단원으로 구성해 전남도 적극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이후 모니터링단과 도내 22개 시·군 적극행정 담당자가 함께하는 업무 간담회를 열고 적극행정 이해를 돕기 위한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 정취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 및 하반기 주요 업무일정 등을 공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